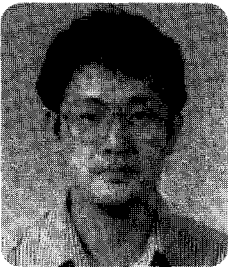


김용관의 발명학회와 1930년대 과학운동 (5)

2) 과학운동의 본격화

문화적 과학화 이념의 유입으로 발명학회에는 두 가지 이념과 노선이 공존하게 되었지만, 이와 같은 상황이 오래 갈 수는 없었다. 발명학회는 그 성격상 발명가 양성 및 지원이라는 분명하고 한정된 목적을 가진 발명가 단체였다. 이러한 단체 안에 발명진흥의 틀을 넘어서는 사회전반의 과학화 이념과 문화운동 전반에서 활동하던 사회 명사들을 포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새로운 이념은 새로운 틀을 필요로 했고, 김용관 등 발명학회 주도자들은 1933년 말부터 과학데이 행사 및 과학지식보급회의 결성으로 이어지게 될 새로운 작업에 착수하였다. 10월 26일 종로 YMCA 회관에서 열린 발명학회 주최의 발명강연회가 성황리에 진행된 이후, 발명학회 간부들과 여타 임원들은 전조선의 과학화를 목표로 한 과학운동을 벌일 시기가 무르익었음을 느꼈다. 곧이어 발명학회 인사들 사이에, 『科學週間』을 설정하고 그 기간에 대규모적인 과학대중화 운동을 벌이자는 의견이 제출되고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⁶⁹⁾

이러한 합의가 공식적으로 표출된 것은 1934년 2월 19일의 발명학회와 과학조선사 합동이사회에서였다. 이날의 이사회에서 “전 민중으로 하여금



임종태
서울대학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목 차

- I. 서 론
- II. 발명진흥과 물산장려(김용관과 발명학회)
- III. 발명진흥에서 과학운동으로
- IV. 이화학연구기관 설립논의(상이한 과학기술관 및 근대화관의 표출)
- V. 과학운동의 전개와 변질
- VI. 요약과 결론

〈고덕은 이병호 명조는 및 다음호〉

69) 발명학회 주최 발명강연회 기사는 『동아일보』 1933년 10월 18, 24, 28일에 걸쳐 실려 있다. 1935년 6월 『과학조선』에 실린 과학지식보급회의 한 공식적 회고문은 ‘이 강연이 잇은 이후로 과학에 관심하는 경향이 농후하여 적었으며 이어서 과학데이 안이 발명학회로부터 제안되야’라고 기록하고 있다. 『조선과학운동의 과거 일년간 경과보고』, 『과학조선』 1935년 6월호 25.

「모든 미신적 관념 내지 비과학적 생활에서 과학적 관념 내지 과학적 생활으로!」라는 것을 표어로 매년 「과학주간」을 설치하여 이 기간 중에 각종 대중적인 과학기념 행사를 벌이기로 하였다. 또한 이 행사는 “각학교, 이화학기관, 상공업기관, 언론기관, 각단체, 기타 일반사회유지”를 총망라해서 “전 조선적으로” 진행하며, 이를 위해 발명학회와는 별도로 「실행회」라는 한시적 단체를 조직하기로 결의하였다.⁷⁰⁾

이사회의 결의는 곧 실행에 옮겨져, 2월 28일 종로 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서 31인의 인사들이 모여 과학주간 실행회를 개최하였다. 먼저 발명학회의 김용관이 과학주간 행사의 취지와 목적, 그 실행방법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제안문에는 과학주간의 목적을 “전 사회적으로 자연과학 지식열을 고취양양함”이라고 밝힌 뒤 그를 위한 구체적 행사로,

- 가) 아동 및 부인에게 각각 적당한 과학지식 강화 환등 활동사진회 등을 개최함
- 나) 중등정도 이상의 학생에게 필요한 강연 강좌 혹은 실험회를 개최함
- 다) 견학단을 모집하여 과학관 박물관 광장 기타 중요기관을 견학함
- 라) 특히 사계에 깊히 유의하는 인사가 모여서 자연과학지식 보급에 대한 토론을 행함 등을 제시하였다. 김용관의 제안문에 대한 토론

과정에서 행사 이름을 과학 ‘주간’에서 과학 ‘데이’로 바꾸자는 박준호의 제안이 통과되는 등 몇 가지 수정이 있었지만, 원래의 제안문과 커다란 차이가 없는 회규가 통과되었다. 그리고 이인, 김용관, 박길룡, 현득영, 정인관 등 기존의 발명학회 이사 5인을 포함하여 조선의 사회명사들로 구성된 37인의 실행위원이 선출되었다. 이후 3월 8일에 열린 제1회 실행회에서는 과학데이를 다윈의 기일인 4월 19일로 정하지는 김용관의 제안이 통과되었고, 실행회 회장으로 김창제와 상무위원 14인을 선출하였다.⁷¹⁾

1934년 제1회 과학데이 행사는 계획 단계부터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기업, 사회명사들로부터 후원금이 이어지는 등 사회의 높은 호응을 받았다. 예를 들어 「동아일보」는 과학데이행사의 준비과정을 상세히 보도하였으며 사설을 통해 행사의 취지를 선전하기도 하였다.⁷²⁾ 경성방직, 서울고무공사, 화신 등 조선인 기업들은 과학데이 행사에 소요될 뼈라의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나섰다.⁷³⁾ 4월 19일 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서 열린 과학데이 기념식 및 강연회에서 800여 명의 청중으로 성황을 이루었고, 4월 20일의 과학관, 경성방직, 중앙시험소 등의 중요기관 견학행사에는 100여 명이 참여하였다. 특히 4월 23일의 과학활동사진 상영회에는 8천여 명이라는 예상 밖의 대규모 인파가 몰려 그 중 800여 명 밖에 입장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

70) 「동아일보」, 1934년 2월 23일.

71) 과학데이 실행회의 창립에 관한 내용은 「동아일보」, 1934년 3월 1, 7일; 「과학데이를 설정실행하기까지」, 「과학조선」, 1934년 6월호, 18-19에 실려 있다. 참고로 선출된 회장 및 상무위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 장 : 김창제

상무위원 : 이 인, 김용관, 박길룡, 현득영, 정인관, 양재창, 이하윤, 박준호, 이규현, 박천병, 현동완, 박희도, 유광열, 조철호

72) 「과학데이회와 그 사업 실행에 충실하라」, 「동아일보」, 1934년 3월 3일. 이 사설의 일부는 「과학조선」, 1934년 6월호, 13~14에도 게재되었다.

73) 「동아일보」, 1934년 3월 28일

저, 주최측은 급히 시설을 확충해야 하였다. 또한 평양, 선천 등 지방에서도 자발적인 과학데이 행사가 거행되었다. 특히 평양의 '자연과학동호회' 주최로 거행된 과학데이 행사는 '자동차 행렬'이라는 기발한 착상을 보여주었다.⁷⁴⁾ 주최측은 이상의 각종 행사와 라디오 방송, 신문을 통한 선전을 통해 과학데이 행사가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친 대중의 수를 최소 43만, 최대 120만여 명으로 추산하였다.⁷⁵⁾

이미 김용관 등 과학데이 주도자들은 한시적인 과학데이실행회를 대체할 상설적 과학운동 기관을 설치하려는 계획을 품고 있었다. 과학데이 행사가 성황리에 진행중이던 4월 22일에 과학데이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과학지식보급좌담회"에는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이화학연구기관 설치'에 대한 안건과 함께 '대중적인 과학지식보급기관 건설'의 문제가 포함되었다. 이날의 좌담회에서 앞의 문제는 별다른 결론에 이르지 못했지만 과학지식보급기관의 건설 문제는 대략의 합의에 도달하였다. 발명학회와는 별도로 전면적이고 광범위한 과학지식 보급사업을 담당할 상설기관으로 '과학지식보급회'를 설치하자는 것이었다.⁷⁶⁾

과학데이 행사가 끝나고 과학데이실행회가 해

산되자 발명학회를 중심으로 과학지식보급회 결성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5월 15일에 있었던 발명학회 이사회에서는 과학데이 행사의 성과를 결산하고 과학지식보급회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⁷⁷⁾ 한편, 과학데이 이후 독자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던 평양의 자연과학동호회와도 접촉하여 과학지식보급회의 결성에 참여시켰다.⁷⁸⁾ 6월 말이 되자 이미 작성된 과학지식보급회의 발기문에 서명한 인사는 경성을 비롯하여 평양, 개성, 김천, 광주, 신의주 등 전국 각지에서 100여 명에 달하였다.

7월 5일 공평동 태서관에서 발기인 중 30여 명이 모여 과학지식보급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규약을 통과시키고 60여 명의 임원을 선출하였다. 회장 윤치호, 부회장 이인을 위시하여, 이사로는 김용관, 박길룡, 김창제, 박준호 등 발명학회와 과학데이 실행회의 주도적 인물과 함께 평양의 조응천, 김병하, 개성의 윤창석, 김천의 고덕환 등 각 지방의 대표적 인물들, 고문으로는 조만식, 김성수, 여운형, 이종인 등의 거물급 인사들이 선임되었다.⁷⁹⁾ 또한 이들의 활동 범위는 교육, 산업, 언론, 종교, 과학기술 등 조선인 엘리트가 진출했던 거의 모든 부문을 망라한 것이었다. 이로써 과

74) 평양의 자연과학동호회는 1931년 7월 조응천의 과학강연회를 계기로 평양에 거주하는 해외유학생들의 단체 '해외유학생친목회'가 발전하여 창립된 단체로 생각된다(『동아일보』 1931년 7월 26일). 이 단체의 조직이나 회원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숭실전문농업경제학자 이훈구, 박물학자 김병하, 물리학박사 조응천이 주도적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평양을 근거지로 하여 이후 과학지식보급회와 과학운동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학술부대의 참모보영』, 『동아일보』 1935년 1월 3일). 또한 자동차 행렬 등 평양의 과학데이 행사에 대해서는 『동아일보』 1934년 4월 19일, 선천 기독교청년회 주최의 과학데이 행사에 대해서는 『동아일보』 1934년 4월 22일을 참조할 것.

75) "과학데이의 성과", 『과학조선』 1934년 6월호, 23~26.

76) 좌담회 회의록은 "과학지식보급기관을 축성하자", 『과학조선』 1934년 6월호, 20~27; 『동아일보』 1934년 4월 24, 25, 26일에 실려 있다.

77) 『동아일보』 1934년 5월 17일

78) 자연과학동호회는 과학데이가 끝난 직후에도 평남 강서와 개성에서 과학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고(『동아일보』 1934년 5월 13일, 27일), 급기야는 6월중에 발명학회의 근거지인 경성에서도 강연회를 개최하기로 계획하였다. 발명학회는 이 소식을 듣자 곧 이들과 접촉하여 강연회의 공동주최를 제안하였던 것 같고, 그 결과 6월 2일 '경평 자연과학단체주최 자연과학대강연회'를 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서 열게 되었다(『동아일보』 1934년 5월 24일).

79) 발기인 및 임원 명단은 "과학지식보급회 일람", 『과학조선』 1935년 2월호, 31~32에 실려 있다.

학지식보급회는 전민족을 대표하는 전국적 조직으로서의 위용을 갖추게 되었다.

과학지식보급회는 과학데이의 성공에 힘입어 과학데이실행회를 더 대규모적인 상설단체로 전환한 것이었으므로 그 이념과 계획된 사업은 이전과 비교하여 별반 달라진 것이 없었다. 예를 들어 과학지식보급회의 창립발기문에는 과학데이실행회와 과학데이 행사에 관류하고 있던 '전 조선사회의 과학적 재편'이라는 문화적 과학화 노선이 선언적으로 표현되었다.

생활의 과학화! 과학의 생활화!

이천만 조선민중은 생활을 요구한다. 생활을 요구하기 때문에 과학을 요구한다. 현대생활은 과학이 안이고는 영위할 수 없으므로 써다. ...다언을 요할 것도 업시 과학은,

자연법칙의 현시자요 현대생활의 지휘자요

공업의 안내자요 수확의 증가자요

질병의 정복자요 미신의 타파자다...

우리의 모든 생활을 과학적으로 개선하자!

일절 문화운동의 기초를 과학으로 다시 짜아 올리자!

다가리 손잡고 과학조선을 건설하기 위하여 분기하자!⁸⁰⁾

따라서 과학지식보급회의 설립으로 이어지는 이상의 과정은, 1933년 하반기부터 발명학회에 나타나기 시작한 문화적 과학화 이념과 과학대중화 노선이 발명학회의 틀을 뛰어넘어 전사회적인 '과학운동'으로 성장하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발명학회 간부들이 본래 추구했던 발명 및 공업진흥의 과제는, 발기문에서도 드러나듯이 이제 과학운동의 하위 강령의 하나가 되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변화를 계획하고 주동한 핵

심적 인물의 대다수는 발명장려와 이화학연구원 설립을 추구하던 발명학회 간부들이었다. 발명학회 이사 5인은 모두 과학데이실행회의 상무위원으로서 적극적 활동을 보여 주었다. 새로이 설립된 과학지식보급회의 활동 역시 기존 발명학회 간부들의 몫으로 생각되고 있었던 점도 그들의 주도적 위치를 알려주는 증거이다. 과학지식보급회의 결성을 토의했던 4월 22일의 좌담회에서 유억겸은, 새로이 건설될 과학지식보급기관과 기존의 발명학회의 관계에 대해서 "보급기관이 따로 생긴 다할지라도 발명학회에서 일을 많이 보게 될 터이니 대립된다던지 그런 염려는 없을 것입니다"라고 발언하였다.⁸¹⁾ 이 발언은 앞으로 건설될 과학지식보급회의 실질적 활동가들이 대개 발명학회 인사들로 충당될 것임을 지적한 것이었다. 실제로 7월 19일에 있었던 보급회의 제1회 이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직책인 전무이사과 상무이사에 각각 김용관, 현득영, 박길룡을 선출하였고, 이후 과학지식보급회의 사업은 이상 3인과 부회장 이인오로 구성된 상무이사회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⁸²⁾ 나아가 이들은 과학지식보급회의 이념, 즉 문화적 과학화 이념의 적극적 주창자이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김용관은 과학데이 당시 라디오 방송에서 행한 "과학지식보급에 대하여"라는 연설에서 과학대중화, 생활의 과학화를 역설하였고,⁸³⁾ 이인은 1934년 과학데이 직후의 글에서, "광모한 자연을 정리하고 그와 같이 사회를 정리하는 것이 인간에게 부여된 능력이라면 그 능력은 과학 자체요

80) 같은 글, 30~32.

81) 같은 글(주76), 21

82) 1934년의 과학지식보급회 이사회 및 상무이사회 기록은, "과학지식보급회 회황보고", 「과학조선」 1935년 3월호, 42~43에 실려 있다.

83) 이 방송문은 「과학조선」에 다시 게재되었다. 김용관, "과학지식보급에 대하여", 「과학조선」 1934년 6월호, 5~8.

과학적인 모든 방법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⁸⁴⁾ 1932년 발명학회를 재건하여, 발명진흥과 그를 통한 자립적 공업화 및 이화학연구기관 설립을 추진해 왔던 발명진흥론자들이 1933, 34년을 거치면서 문화적 과학화 이념에 기초한 과학운동의 주도자들로 변모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김용관 등 발명학회 간부들이 자신의 노선을 다소 수정하여 대중적인 과학보급운동을 일으킨 동기는 어디에 있었을까?

1933년에서 1934년까지 김용관 등 발명학회 간부들이 걸었던 이념적 경로는 자신의 이념을 당시 문화운동에 참여하고 있던 사회명사들의 관심과 성향에 동조해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애초에 사회명사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발명학회가 추구하던 발명진흥과 이화학연구기관 설립에 대한 지원을 얻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사회명사들의 대규모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태도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조직적 틀과 함께 그들의 관심에 부응하는 이념과 사업을 창출할 필요가 있었다. 그 결과 발명학회 간부들은 조직적인 측면에서 발명학회의 틀을 뛰어넘어 사회명사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는 단체와 사업을 계획하는 한편, 이념적으로도 이들 사회명사의 경향에 부응하여 사회 전반을 과학적으로 재편하자는 문화적 과학과 이념을 채택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발명학회 간부들이 보여준 이념적 동조는 단지 그들의 이념을 포기하는 수동적 과정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원래 계획을 좀 더 확대된 공간에서 대규모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적극적 전략의 표현이었다. 실제로 과학지식보급회의 발기문

은 단지 사회명사들의 문화운동적 경향을 표현한 것 이상으로 모든 문화운동을 과학운동 속에 아우르려는 적극적인 주장을 포함하고 있었다. 발기문 중 “일절 문화운동의 기초를 과학으로 다시 쌓아 올리자!”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 표현은 김용관이 1934년 11월 27일 종로기독교청년회관에서 행한 연설 “과학전선에 입한 조선”에서 더욱 구체화되었다. 그는 이 연설에서 당시의 제반 문화운동을 농촌진흥운동, 상공업발전책 수립운동, 물산장려운동, 미신타파운동, 문맹퇴치운동, 민족보전운동, 금주금연운동, 교육시설 증진운동 등의 여덟가지로 열거한 뒤, 이들 각각이 그 취지는 좋지만 “사실의 본령”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가 말하는 사실의 본령이란 곧 과학과 그 응용이었다. 예를 들어 농촌진흥운동의 경우, 그 운동이 목표하는 바 농민의 자력개생을 이룩하려면 농사에 관한 과학지식을 보급함으로써 “농민의 지능을 열어주는”일이 우선되어야 했다. 또한 물산장려는 우선 장려할 물산을 과학의 응용을 통해 만들어 놓은 뒤에야 가능한 일이었다. 나머지 문화운동 분야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하게 말한 뒤에 그는 자신의 문화운동 비판을 다음과 같이 끝맺고 있다.

이상에 말씀하야온 모든 방면의 본령! 모든 것의 기초는 과학과 기응용을 등한히 생각하여서는 절실한 효과가 잇기 어려울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러므로 현하 모든 운동에 잇서서 무엇 보라도 필요한 바는 과학적 해결과 과학적 처리에 잇는 바를 나는 거듭 주장하는 바 올시다. 따라서 때가 비록 늦지만은 지금부터라도 사회전반이 이 과학을 이해하며 과학 위에 모든 운동을 짜하올니는 공작을 시작하기 위하여 고학지식보급운동을 제 일차으로 착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⁸⁵⁾

84) 이인, 「과학데이를 지내고」, 「과학조선」 1934년 6월호, 2~3

85) 이 연설문은 같은 제목으로 「과학조선」 1935년 2월호, 2~6에 실렸다.

즉, 민족 근대화의 본령은 과학에 있으므로 모든 문화운동에 우선하여 과학운동을 벌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학지식보급회의 이념은 한편으로는 사회명사들의 문화운동적 관심에 부응하는 것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에 그치지 않고 사회명사들의 관심과 노력을 '모든 문화운동의 기초인' 과학운동에 집중시키려는 발명학회 간부들의 적극적 의도의 표현이기도 했던 것이다.

따라서 김용관 등 발명학회 간부들에게는 자신의 본래 목표, 즉 발명의 진흥 및 이화학연구기관의 설립 문제가 여전히 핵심적인 과제였다. 예를 들어 그들은 과학지식보급회의 설립을 결의하는 등 이후 과학운동의 방향을 결정했던 1934년 4월 22일의 좌담회 의제의 하나로 이화학연구기관 설립에 대한 안건들 포함시킴으로써 그것을 과학운동의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려 하였다. 또한 과학지식보급회의 설립 이후에도 김용관, 박길룡은 「과학조선」을 통해 이화학연구기관과 같은 취지의 발명장려기관의 설립을 계속 주장하였고, 특히 김용관은 「신동아」의 지면을 통해 소규모 공업진흥론 및 발명진흥론을 전개하여 자신이 여전히 물산장려의 이념을 견지한 공업 및 발명진흥론자임을 보여주었다.⁸⁶⁾ 즉 김용관 등은 '조선사회 각 분야의 과학화'라는 광범위한 목표로 진행된 과학운동

속에서도 원래의 꿈과 계획을 견지하고 있었고 나아가 이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 광범위해진 운동 공간을 도리어 이용하려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1934년 7월에 형성된 과학지식보급회발명학회 체제는 김용관 등의 이와 같은 의도를 실현하는데 적합한 조직을 제공하였다. 우선 발명학회는 김용관의 조직적 교두보로서 조선인 발명가들을 규합하여 이후 이화학연구기관의 설립 등 대규모 발명진흥사업으로 나아갈 기반이었고, 명망가, 유력자들이 모인 과학지식보급회는 그들의 계획을 사회적으로 선전하고 그 계획 아래 사회명사들을 결집시킬 통로였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김용관 등 발명학회 간부들은 자신들이 원래 계획하였던 발명진흥사업과 이화학연구기관 설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당시의 민족운동 전반에 깊이 개입하는 결과를 빚게 되었다. 그들은 이전보다 더 열려진 장, 더 폭넓은 이념 하에서 자신의 계획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렇듯 확대된 공간에는 새로운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과학운동에 참여한 사회명사들은 김용관과 발명학회의 계획, 특히 이화학연구기관을 설립하지는 주장에 대해 쉽게 동조하려하지 않았던 것이다. <계속> **발특9702**

신 간 안 내	작은 아이디어로	글 : 왕 연 중	
	크게 성공한		규 격 : 국판 220면
	세계적인 발명가들		가 격 : 5,500 원
			판 매 : 회원사업부
		(557-1077/8 교환 225)	

86) 김용관, 「과학의 위력」, 「과학조선」 1935년 6월호, 4~10, 14; 「조선공업문제」, 「신동아」 1935년 6월호 39~45; 「발명과 공업」, 「과학조선」 1935년 8월호, 3~11; 「공업조선 일년회고」, 「신동아」 1935년 12월호, 33~37 등.